

전국 인공 신장실 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신장학회 윤리홍보위원회

박상은 · 강덕희 · 손승환 · 이강욱 · 김 향 · 남궁미경 · 박찬현 · 김형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점차로 증가됨에 따라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서의 투석의 개념이 아니라 투석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까지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투석 환자의 현황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미 등록위원회 주관 하에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의 형태, 예를 들면 의사 및 간호사의 수와 자질, 인공신장실의 기자재, 부속시설이나 환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윤리홍보위원회에서는 전국 인공 신장실을 대상으로 1) 병원 일반 현황 2) 신장실 담당 의사 현황 3) 신장실 근무 인력 현황 4) 신장실 배치 실태 현황 5) 의료 기자재 및 설비 관련 현황 6) 의료기관 경영 현황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한국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 내용과 인공 신장실의 기본적인 수준 설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1) 총 233개 설문지 발송 병원 중 응답 병원은 217개로 응답률은 93.1%이었고, 응답 병원의 총 투석 환자는 15,860명(혈액투석 11,854명, 복막투석 4,006)이었다. 전체 지역의 병원 규모 분포는 개인병원(34.4%), 종합병원(32.6%), 대학병원(26.0%), 준종합병원(7.0%)의 순이었다.

2) 신장실 담당의사의 81.6%가 신장학회 회원이었고, 전공별로는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가 45.8%, 그 외 내과 전문의가 51.4%, 일반의가 0.9%이었다. 그 외 타과 전문의로는 소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등이 있었다. 담당 의사의 60.4%가 신장실 담당 경력이 4년 이상이었고 11.1%는 1년 미만이었다.

3) 의사 1인당 혈액투석 환자의 비율은 평균 $41.8 \pm 26.8(1-180)$ 명으로 대학병원(45.5 ± 31.4)과 개인병원(52.2 ± 26.9)이 종합병원(31.9 ± 19.2)이나 준 종합병원(23.7 ± 15.7)에 비해 많았다.

4) 신장실의 평균 간호사 수는 5.7명으로(1-31명) 정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의 평균은 12.4 ± 7.2 명이었다.

5) 70% 이상의 병원에서 정수실, 간호사실, 환자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환자 전용 화장실과 물품 보관실의 경우 각각 45%, 28%에서만 있었다.

6) 혈액 투석 침상간 거리는 80% 이상이 70cm 이상이였다. 간염 환자 격리는 41%에서 B형과 C형을 모두 격리 투석하고 있었고 13.4%에서는 격리 기계가 없었다.

7) 신장실의 87%에서 emergency kit을 보유하고 있었고 심장 충격기는 34%에서, portable EKG monitor는 65%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8) 투석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47.8%의 병원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었고 9.5%에서는 차량 제공도 가능하였다. 주변 병원과의 응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병원은 74.9%이었고 80.9%에서 신장실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9) 투석료 감면이 이루어지는 병원은 전체 응답 병원의 11.5%로, 감면 동기는 불우 환자를 돕는 차원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60%, 주변 병원과의 형평성, 사회적 기여를 감면 동기로 응답한 병원이 각각 16%, 12%이었다.